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주일예배 및 모임안내

| | |
|-----------------|----------|
| 주일1부예배 본당 | 9:00 am |
| 주일2부예배 본당 & 라이브 | 11:00 am |
| Youth 아가페홀 | 11:00 am |
| 유초등부 아가페홀 | 11:00 am |
| 영유치부 본당 지하 | 11:00 am |

| | |
|----------------|----------|
| 화요소망학교 아가페홀 | 11:00 am |
| 수요대학/기도회 본당 | 8:00 pm |
| 새벽예배 (화-토) 본당 | 6:00 am |
| 청년부예배 (토) 아가페홀 | 12:30 pm |

WELCOME
WORSHIP
DISCIPLESHIP

[Matthew 11:28-30]

교회를 섬기는 이들

| | | | |
|-------|---------|--------|--------------------------|
| 담임목사 | 김성직 목사 | 은퇴장로 | 김대희 배상진 임병갑 장기림 백근조 |
| 방송/청년 | 오정훈 목사 | | 이덕흥 이창진 윤순화 오귀록 |
| 소망학교 | 이신웅 전도사 | 찬양인도 | 황규식 |
| 중고등부 | 문강한 전도사 | 지휘자/서무 | 박은실 |
| 유초등부 | 청빙중 | 반주자 | 노윤실사모(1부,새벽) 김은화 이화니(2부) |
| 영유치부 | 김성은 사모 | 번역/통역 | 김예람 이화니 송명신 |
| 시무장로 | 백형수 윤순기 | 방송 | 조준한 Daniel Sewell |

열방을 섬기는 이들

| | | | |
|-----|-----|--------|---------|
| 태 국 | 배중원 | 요 르 단 | 설총호/전경원 |
| 중 국 | 이주애 | 도미니카 | 이광호 |
| 케냐 | 이영규 | 아파치인디안 | 강원용 |
| 칠레 | 황신재 | 키르키즈스탄 | 바나바/다비다 |
| 모로코 | 김영목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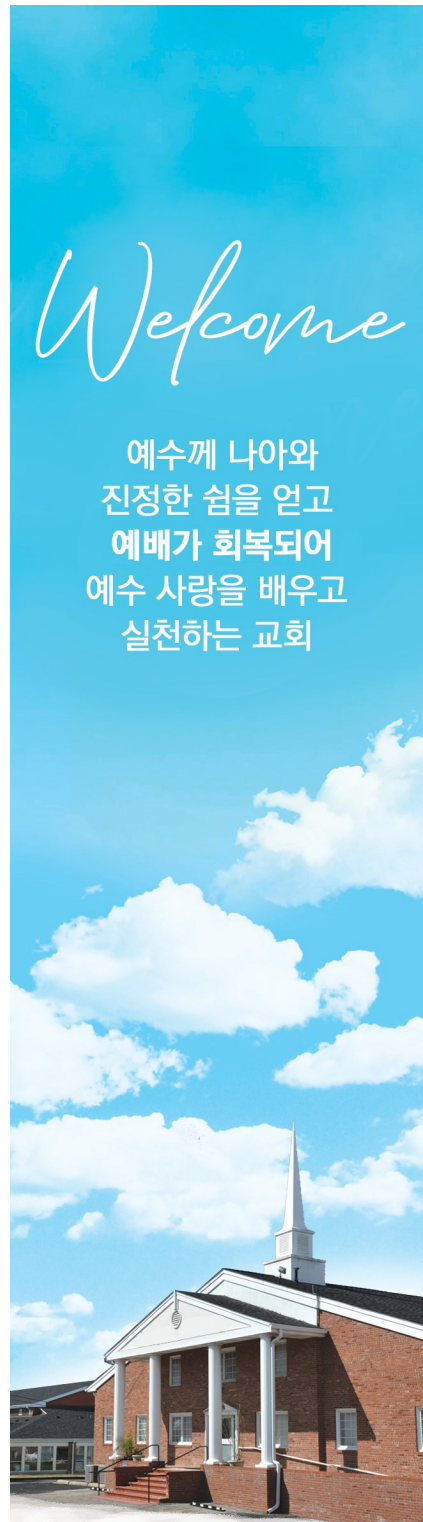
세인트루이스 한인소망교회

Korean Hope Presbyterian Church of St. Louis

2210 Mckelvey Rd., Maryland Heights, MO 63043

Church (314) 275-2661 Agape Hall (314)786-5018

Email HopeSTL@gmail.com www.HopeSTL.org



예수께 나아와
진정한 쉼을 얻고
예배가 회복되어
예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

6.4.2023

참된 삶의 예배자 3.

1부 9:00 AM 2부 11:00 AM

LIVE

주 일 예배

SUNDAY WORSHIP

| | |
|---------|---------------------------------|
| 경배와 찬양 | 찬양팀 (15분 전부터 시작됩니다) |
| * 기원 | 인도자 / 김성직 목사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 성서교독 | 교독문 61번 시편 Psalm 142 편 |
| 참회의 기도 | 요엘 Joel 2:12-13 |
| 찬송 | 찬 29장 성도여 다함께 다같이 |
| 기도 | 백형수 장로 |
| 광고 | 인도자 / 김성직 목사 |
| 봉헌, 봉헌송 | 찬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다같이 |
| 봉헌기도 | 인도자 / 김성직 목사 |
| 성경봉독 | 로마서 Romans 14:17-15:7, NT p 259 |
| 말씀 | 참 된 삶의 예배자 3. / 김성직 목사 |
| Sermon | True Worshippers of Life 3. |
| *결단의 찬양 | 믿음으로 서리라 |
| * 축도 | 김성직 목사 |

* 일어서서 Please stand up

(2) 중세교회: 그러나 로마의 국교가 된 후 교회는 점점 세속과 '화해적, 동화적'이 되구요,

(3) 종교개혁: 그러다 썩어가는 중세 교회에서 참 된 진리를 구분하려고 '분리적'이 됩니다.

(4) 그렇다면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물론 종교개혁의 정신과 교회론은 아주 훌륭하고 고결하지만, 시대가 그 때와 지금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500년 전 종교개혁 당시 교회 이미지 그대로 "분리적"으로만 오늘날의 교회가 따라가고 있다면, 그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500년 전 그 때에는 기독교가 유럽대륙의 90%이상이었고,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2. 분리적 교회론의 후유증

(1) 내향적 성격: 분리적이다보니 점점 교회는 외향적이기보다는, 내향적이 되어가구요,

(2) 평신도의 무기력화: 성도들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갈수록 무기력하게 되구요,

(3) 교역자의 권위주의: 그러니 교역자들은 권위주의에 빠져서 교회는 개혁되지 못하구요,

(4) 시대 적응에 취약: 그러다 시대 적응에 실패해서 지금 유럽 전역에는 교회다운 교회가 많이 사라진 현실입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부분을 간과했기 때

문일까요?

3. 교회의 네 가지 본질 (381년 니케아 신경은 다음 네 가지를 교회의 본질이라 말씀합니다.)

(1) 성성 (Holiness): 거룩한 교회인가?

(2) 통일성 (Unity): 하나된 교회인가?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엡4:5)

(3) 보편성 (Catholicity): 초대교회의 신앙과 고백을 이어가는 보편적인 교회인가?

(4) 사도성 (Apostolicity): "보냄 받은 자의 사명"이 있는 교회인가?

바로 전통적인 교회론에서는 이 "사도성"이 가장 크게 간과되어왔던 부분입니다. 500년 전처럼 대부분의 국민이 그리스도인일 경우에는 그다지 강조하지 않아도 무방하겠지만, 상황이 전혀 다른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서는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사도성" "부름 받고 보냄 받은 자의 사명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자훈련 목회 교회론 (1)

“제자훈련 목회”에 대해 우리 교회가 함께 결정하기에 앞서서, 앞으로 몇 주 동안 목회자컬럼을 통해 이 부분을 성도님들께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수요대학에서 세 차례에 걸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는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자훈련 목회”는 담임 목사 혼자서, 또는 몇몇 성도들끼리만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무너져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지원이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적어도 2/3 이상의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뜻을 정하고 힘써야 어느 정도의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기존의 목회 방향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제자훈련 중심의 목회로 전향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질문 중 하나를 택해야 할 때가 조만간 있을건데요, 그동안 “제자훈련 목회”에 대한 컬럼의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목회 방향대로 간다”라는 결정이 내려진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전향은 아니라 할지라도, 기존의 목회를 유지하면서 “제자훈련 목회”의 정신으로 양육 프로그램을 정착시키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계획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자훈련 목회”가 어떤 것인지를 인지하시고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나무이든지, 뿌리부터 제대로 심겨져야 줄기가 똑바로 나고, 훗날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사역” 역시도 그 뿌리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제자훈련 목회”의 뿌리는 바로 “교회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부터 시작하는 게지요.

<제1장 교회론>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 역시 500년 전에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으로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있는 교회”, “성도의 일치와 순결이 있는 교회”,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가정, 이스라엘, 초대교회라는 연속성이 있는 교회” 등등 전통적인 교회론이 있었는데요, 종교개혁 후 근 5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론은 우리 교회들 안에서 별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왔습니다.

여기에 고 옥한흠목사님은 주목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 당시와 지금 이 시대 사이에는 “교회의 이미지가 서로 다르다” 라는 사실입니다.

1.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교회의 이미지

(1) 초대교회: 초창기 교회를 굳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전투적’ 이미지였구요,

성서교독

교독문 61번 시편 Psalm 142 편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 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다같이] 주께서 나에게 갓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참된 삶의 예배자(3) 롬 14:17-15:7

< 본문 속으로 >

1.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나요? (14:17)
2. “하나님의 나라” 세 가지 요소를 뭐라고 말씀하나요? (14:17)
3.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모습은 어떨까요? (14:18)
4.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누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나요? (15:4)

SATURDAY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1. “의”와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2. 담임목사님에게 날마다 새 힘과 권능을 주셔서, 귀한 영의 양식을 말씀으로 능력있게 전하고 주님 사랑으로 성도들을 품게 하소서.
3. 모든 리더쉽들에게 항상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 반석 위에 모두 한 마음으로 동역하게 하시고, 사역의 현장마다 풍성한 섬김의 열매가 있게 하소서.

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의 선하심을 내 안에 서도 점점 회복해 나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3.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자로 주께 납작 엎드러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SUNDAY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1. 세상 풍조에서 벗어나,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가득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2. 거짓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마음을 두

함께 기도

이창진 장로님: 무릎 수술 후 회복 중이십니다.

안성실 권사님: 허리 수술 후 회복 중이십니다.

배상진 장로님: 교통사고로 등에 골절을 입으셔서 보호대 착용 중이십니다.

송명신 자매님: 계속 건강회복중이십니다.

이소연 자매님 딸 엘라: 어릴적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앓고 있습니다. 고관절 재수술과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장길자 권사님: 협착증으로 허리 수술 후 회복 중이십니다.

백영희 집사님 딸 엘리슨: 턱 수술 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MONDAY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게 하소서

1. 오직 성경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주께서 옳다 하시는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2.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대로 행하는 열매가 점점 맺히게 하소서.
3.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반면 “악”한 것에는 미련하게 하소서.

TUESDAY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1. 부모인 내가 먼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소서.
2. 하나님만이 중심 되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정되게 하소서.
3. 성경적 가정의 모범을 이루어 서로 사랑하며 공경하며 순응하게 하소서.

WEDNESDAY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1. 주께서 맡겨주신 자리이기에, 주께서 부여하시는 은혜와 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2. 성경 말씀에 기초한 선택과 집중으로 학업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소서.

3. 세상과 아무런 마찰이 없이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빛의 용사가 되게 하소서.

THURSDAY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1.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하소서.
2. ‘코로나19’을 지나가며, 각 나라와 민족들이 더욱 더 하나님 앞에 무릎꿇고 회개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3.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흠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어디서든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FRIDAY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소서

1.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2.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아 거룩한 계보를 이어서 교회와 민족과 맡겨진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3. 흔들리는 세상 문화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당당하게 믿음의 뜻을 정하게 하소서.

<생활 속으로>

1. 참된 삶의 예배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과연 어떤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고 있는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예배자가 맞는지, 돌아보세요.

2. 참된 삶의 예배자는, 의의 말씀으로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가집니다. 나는 과연 어떤 힘의 원천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 말씀으로 부여하시는 인내와 위로와 소망으로 살아나가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3. 참된 삶의 예배자는, 평강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받아줍니다. 나는 과연 화평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행여 어떤 것으로라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세요.

4. 참된 삶의 예배자는, 천국잔치의 희락으로 평생 누리며 살아갑니다. 나는 과연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낙으로 살아가는지, 돌아보세요.

소 망 소 식

예배를 섬기는 이들

| 6/4 | | 6/10 | |
|-------|-------------|-------|-------------|
| 대표 기도 | 백형수 장로 | 대표 기도 | 오귀록 장로 |
| 교회 안내 | 윤순기 장로 | 교회 안내 | 윤순화(정미자) 장로 |
| 번역 | 김예람 자매 | 번역 | 이화니 자매 |
| 애찬 담당 | 키르키즈스탄 구역 | 애찬 담당 | 요르단 구역 |
| 교회 청소 | 요르단 구역 (6월) | 교회 청소 | 요르단 구역 (6월) |

향기로운 예물 5/28/2023

| | | | | | |
|-----|---------|------|-------|---------|------------|
| 주일 | \$944 | 구역선교 | \$120 | 주일학교/유스 | \$10 |
| 십일조 | \$4,007 | 첫열매 | \$0 | 인디안 선교금 | \$150 |
| 감사 | \$825 | | | | |
| 선교 | \$0 | | | | |
| 건축 | \$50 | | | 헌금총액 | \$6,106.00 |

헌금 외 수입금

생명의 삶 구입 \$15

합계 \$15
입금총액 \$6,121.00

교회헌금 KHPC 2210 McKelvey Rd., Maryland Heights, MO 63043
온라인 HopeSTL.org/online-donation

로마서 성경필사

제출해 주신 노트 찾아가시고 선물도 함께 받아가세요.

제자훈련 목회

‘제자훈련 목회’ 를 설명하는 목회자컬럼을 꼭 읽어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기당회

오늘 식사교제 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교회행사

교우동정

새로 등록된 교인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구역 모로코 구역(오귀록 장로 임희남 권사)과 김영목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가정 윤순기(신상란 권사) 장로님 가정 위해서
주님앞에 갈 때까지 건강하게 주의 일 다 할 수 있도록